

인도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한국기업 진출 사례 및 전략

2006. 3. 8

☐ 발표자

- 산업연구원 주동주 박사
(영국 맨체스터대 석·박사)

☐ 토론자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친마이 교수
(인도 네루대 석사, 서울대 경영학과 박사)
- 한국외대 인도어과 김찬완 교수
(인도 델리대 석·박사)
- 한국수출입은행 손승호 부부장

인도의 외국인 투자환경과 한국기업 진출 사례 및 전략

2006. 3. 8

산업연구원
주 동 주 연구위원
(djoo@kiet.re.kr)

<목 차>

I. 인도의 외국인 투자환경	1
1.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동향	1
2. 인도 투자환경의 장단점 평가	5
3. 인도와 중국 투자 환경 비교	7
II.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 사례와 전략	13
1. 연도별·업종별 대인도 투자 현황	13
2. 한국의 대인도 투자기업 실태조사 결과	16
3. 대인도 투자진출 전략	22
4. 투자 유망업종	29

I. 인도의 외국인 투자환경

1.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동향

□ 좌파와의 연정 불구 개혁·개방 정책 지속

- 2004년 5월 국민의회(Congress)를 중심으로 공산당 등 16개 정당의 연합세력으로 집권한 현재의 연합진보동맹(United Progressive Alliance: UPA) 정부는 기존의 개혁·개방정책 노선을 지속함으로써 좌파 세력의 집권에 따른 외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음.
- 특히 만모한 싱(Singh) 총리와 치담바람 재무장관은 1990년대 개혁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로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개방 노선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음.
- UPA는 집권 직후 연정내 다양한 세력의 이해를 반영한 공동최소 강령(Common Minimum Programme: CMP)을 발표하였음.
 - 동 강령은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연간 7%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면서 농민, 노동자, 여성 등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책 목표를 밝히고 있음.

□ 투자환경 개선 노력 확대

- 인도 정부는 향후 10년간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총 1,50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04년말에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정책을 평가하고 심의할 3인의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ssion)를 구성하였음.

- 위원장: Ratan Tata (Chairman of the Tata Group)
- 위 원: Ashok Ganguly (Chairman, ICICI-One Source Bank)
Deepak Parekh (Chairman, Housing Development and Finance Corporation)

○ 2005년 2월초에는 종전에 49%로 제한해 왔던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을 71%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음. 또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됐던 108개 제품 생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음.

○ 외국인투자를 금지해왔던 광업과 소매유통업 부분도 단계적인 개방을 통해 향후 51%까지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BOX 1> 통신산업 외국인투자 제한 완화 조치

- 인도정부는 통신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맞추어 급증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05년 2월초 이동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49%에서 71%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음.
- 그러나 기간산업에 대한 국익보호를 주장하는 연정내 좌파세력의 요구를 반영하여 일련의 단서 조항을 덧붙였음.
 - ◆ 대표이사를 포함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인도인이어야 함.
 - ◆ 최소한 1인 이상의 인도인이 최저 10.5%의 지분을 보유해야 함.
 - ◆ 기술담당 책임자와 재무 담당 책임자는 인도인이어야 함.
 - ◆ 국내통신 트래픽이 해외에서 라우팅되어서는 안됨.
 - ◆ 고객의 정체는 언제든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회사법(Companies Act), 금융관련법들의 개정과 조세 개혁, 채권 시장 육성 등 일련의 개혁조치도 계속 추진되고 있음.
 - 1956년 제정된 회사법을 개정하여 781개 조항을 287개로 줄이고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규제들을 대폭 줄일 계획임.
 - 2005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 도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판매세(sales tax)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4%와 12.5%의 부가가치세로 대체해 나갈 예정임.
 - 또한 실효 법인세율을 35.9%에서 33%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도 인하
- 금융 관련 규제들을 정비하여 완화하고 기업 채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육성할 계획임. 또한 뭍바이를 글로벌 금융센터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임.
- 인프라 부족이 외국인투자 유입의 심각한 장애요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대대적인 인프라 확장 사업을 추진 중임.
 - 만모한 싱 총리는 인프라 확장에 향후 10년 동안 연간 15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 2005년 11월에는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내외자 동원을 위해 “특별 재정기구”(Special Purpose Vehicles: SPVs)와 “인프라 재정 조달회사”(India Infrastructure Finance: IIFCL)를 설립하였음.
 - 2005년 예산에는 전국고속도로 건설기금에 9,320억 루피 (202억 달러)를 배정하였음.

- 또한 많은 정치적 논란 끝에 뭄바이와 델리 공항의 확장을 위해 합작기업을 설립키로 하고 외국인 지분을 74%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좌파 세력의 분배정책 도입 압력

- 연정내 좌파 세력은 2004년말 포괄적인 고용법안(Employment Bill)을 입안하였으나 치담바람 재무장관 등 자유주의파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 수정중임.

- 당초 법안은 국가가 모든 가구당 최소한 1인에게 최저임금으로 최소 100일의 고용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좌파 세력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조치를 중단 내지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인도인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전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업무를 담당하던 Ministry of Disinvestment는 재무부 내의 한 Department로 축소

- 2005년 8월에는 증권시장을 통해 Bharat Heavy Electricals의 정부 지분 10%를 매각하려는 시도를 중단시키고, 13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도록 하였음.

- 또한 2005년 5월에는 특별경제구역(SEZ) 내의 수출기업들에게 근로자 해고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수정하여 근로자 해고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함.

- 동조치는 미국, 유럽과의 2005년 섬유 의류 수출 쿼터 협정 (Agreement on Clothing and Textiles: ACT)에 따라 섬유 의류 수출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인도 산업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태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 2004년 9월 1일 인도 - 태국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음. 동협정에 따라 82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50% 삭감되고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늘린 후 1년 후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동협정 체결 직후 일본의 소니사가 인도에서 오디오 및 TV 생산을 중단하고 태국 공장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했음. 인도와 태국에 공장을 지니고 있는 한 현지기업도 인도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음.

2. 인도 투자환경의 장단점 평가

□ 잠재력 큰 저개발 시장

- 인도는 10억 인구와 광대한 국토, 풍부한 자원을 지닌 서남아시아의 대국으로서 기본적인 시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특히 1991년 이후 기존의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버리고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시장경제 지향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의 투자 자문회사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인도 경제가 향후 15년 후인 2020년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경제규모를 초월하고 2030년까지는 독일, 일본의 경제규모도 추월하여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음.
- 인도는 영어사용이 가능한 저임의 고급 노동력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평균 국민소득이 600달러 수준의 낮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편중으로 1인당 소득 1만 달러 (PPP 기준, 시장가격 기준으로는 2,000 달러 수준)이상 인구가 최소한 5,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됨.
- 특히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누리는 최상류층 인구도 500-1,0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인구만으로도 유럽의 웬만한 소규모 국가 수준의 소비시장이 형성됨.

〈표 1-1〉 인도 투자 환경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 10억 인구와 광대한 국토, 풍부한 자원 등 보유 ◆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 등 잠재력 큼 ◆ 영어 사용권으로 다른 언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 소통 쉬움 ◆ 우수한 저임 고급 인력도 풍부 ◆ 부의 편재로 고소득층 인구도 두터움	◆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신규시장 ◆ 1인당 소득 600달러 수준의 저개발국 ◆ 열악한 인프라 사정 (수송, 통신, 전력, 용수 등 부족) ◆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 ◆ 관료 부패 등 행정 비효율

□ 경제·사회구조의 낙후성이 기본 문제

- 인도는 최근의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1인당 GDP가 600 달러 정도에 불과한 세계 최빈 개도국의 하나이며, 경제, 사회 전반에 저개발국형 특징들이 상존하고 있음.
- 수송, 통신, 전력,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한 기업활동의 장애가 상당히 큰 수준임.
- 최근의 개방,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랜 폐쇄적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제도적 장벽이 강함.

- 관료들의 부패가 심각하고 행정 처리 속도가 늦는 등 행정 비효율도 사업환경의 심각한 장애로 알려지고 있음.
- 우리에게선 진출 경험이 적고 관련 정보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지의 시장이라는 점이 약점이 되기도 함.

3. 인도와 중국 투자 환경 비교

□ 양국 모두 빠른 성장으로 외국인투자 유인

- 중국과 인도는 각각 1978년, 1991년 대외개방정책 채택 이후 높은 경제성장세를 시현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입이 늘어나고 이것이 다시 성장을 끌어가는 선순환을 보이고 있음.
- 중국경제는 1980-90년대 동안 연간 10% 가까운 성장을 기록해왔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도 계속 9% 전후의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인도는 1990년대 이후 연간 4-5%의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연간 7-8% 수준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표 1-2〉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중 국	8.0	7.5	8.3	9.5	9.5	9.0
인 도	5.4	3.9	4.7	7.4	7.3	7.1
한 국	8.5	3.8	7.0	3.1	4.6	4.0
세 계	4.7	2.4	3.0	4.0	5.1	4.3

자료: IMF(2005), World Economic Outlook, Sep. 2005

재정경제부, 「월간경제동향」, 각호

- 또한 저임의 생산인력을 노리고 들어오던 FDI를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유도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연계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중국은 금융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개방 폭을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2004년에는 5개 은행이 27억 달러의 FDI를 신규로 유치했음.
- 인도 역시 통신업, 도소매업 등 종래 기간산업과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FDI를 제한했던 분야에 대해 개방 폭을 확대하고 있음.
- 최근 R&D 분야의 투자가 중국과 인도에 집중되고 있어 향후 이 두 나라가 기술집약적인 산업분야에서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2~4년중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R&D 투자는 885건을 기록했으나 이 가운데 3/4에 달하는 723건이 중국과 인도에 집중되었음.
- 중국 경우 2004년말까지 700여건의 R&D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인도는 100여개의 다국적기업이 R&D 센터를 이미 설치하였음.

□ 중국은 제조업, 인도는 서비스업 위주 성장

- 중국과 인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두 나라의 산업구조를 보면 중국은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해 온데 반해, 인도는 서비스업 위주의 성장을 하고 있음.
- 2003년 기준 중국은 GDP에서 광공업 비중이 53%, 인도는 서비스업이 52%

- 인도의 경우 농수산업의 비중이 23%로 아직 크고, 광공업 비중은 26%로 상대적으로 더딘 성장을 하고 있음. 특히 IT 서비스, 금융, 건설, 무역 등 서비스업 부문의 빠른 성장에 따라 광공업 비중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도 함.

〈표 1-4〉 인도와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 %

	인 도			중 국		
	농수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농수산업	광공업	서비스업
1995	29	29	41	21	48	31
2000	27	27	46	16	49	34
2003	23	26	52	15	53	32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각년호.

- 제조업 경우 인도의 인건비가 중국 보다 1.5배 정도 비싸고 노동의 질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로도 중국과 같이 제조업 위주의 성장 구조를 지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아래 인도 - 중국 노동력 비교 참조).

□ 인프라, 행정 열세, 금융·소프트웨어 우세

- 중국과 비교해 인도의 인프라 사정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도로의 경우 중국은 4-6차선 고속도로가 2만 5,000km인데 반해 인도는 3,000km에 불과함. 전력 경우 중국에서는 한달에 5회 정도 단전사고가 발생하나 인도에서는 17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한국수출입은행, 「수은해외경제」 2005. 1. 참조).
- 중국에서는 기업을 설립할 때 10개의 행정장애가 있으나 인도에서는 약 30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음.

- 인도의 경우 은행부문의 부실 자산(NPL) 비율이 4%에 불과하지만 중국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금융시장은 인도의 경우가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인도의 경우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오고 있는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 노동시장 비교

- 노동시장의 경우 인도는 근로자의 해고가 자유롭지 못하고 노조의 힘이 강하며, 근로 개념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됨. 반면 중국은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근로자들의 기강과 훈련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동일 직급의 임금을 비교할 때 초임의 경우는 인도가 중국 보다 1.5배 정도 높으나 경력이 올라갈수록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음.
- 2003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인도 뉴델리의 경우 월 40.5 달러 수준임. 중국은 북경의 경우 월 59.8 달러, 상해의 경우 68.87 달러로 되어 있음.
- 경제활동인구는 현재까지 중국이 인도 보다 많으나 증가속도는 인도가 훨씬 빠름. UN의 추정에 따르면 2030년경 인도가 중국을 쫓히고 세계1위의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여성노동자 비율은 중국이 45.2% (2002), 인도 32.4%(2001)로 중국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여성인력의 노동 참여가 활발함.

〈표 1-5〉

인도와 중국의 노동력 관련 지표 비교

	인 도	중 국	
경제활동인구	6억 3,800만명 (2001)	7억 5,400만명 (2002)	
연평균증가율(2001-10)	1.8%	0.8%	
여성노동자비율	32.4%	45.2%	
실업율	7.3% (2000)	4.0% (2002)	
산업별 노동인구	(1999/2000)	(2002)	
농업	56.7%	50.0%	
공업	17.6%	21.4%	
서비스업	25.7%	28.6%	
임금 (2003. 11 월급, 달러)	(뉴델리)	(상해)	(심천)
일반기능공	133-154	109-218	86-335
중간기술자	317-387	269-601	179-494
중견관리직	936-989	567-1,574	408-1,193
최저임금	하루 61.43 루피 (1.35달러, 2003년 2월)	월 59.8 달러 (북경, 2003년 12월) 월 68.87 달러 (상해, 2003년 7월)	
취학율 (2000)			
초등학교	102%	106%	
중학교	49%	63%	
고등학교	10%	7%	

자료 : 日本 海外投資情報財團, 「インドの投資環境」, 2004. 5.

Ⅱ.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 사례와 전략

1. 연도별 · 업종별 대인도 투자 현황

□ 최근 대인도 투자 빠르게 증가

-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2005년말 현재 총 176건 8억 6,300만 달러가 이루어졌음.
- 이는 우리나라의 총해외투자 2만 8,124건, 584억 달러에 비할 때 건수로는 0.6%, 금액으로는 1.5%에 불과한 수준으로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말해 줌.
- 그러나 최근 들어 대인도 투자는 빠르게 증가해 최근 인도경제의 고성장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음.

〈표 II-1〉 한국의 연도별 대인도 투자현황

단위 : 건, 백만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0	6	12	7	15
2001	11	35	10	29
2002	8	43	9	45
2003	10	21	10	17
2004	29	49	27	41
2005	32	113	33	91
Total	206	1,500	176	86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표 II-2〉

한국의 업종별 대인도 투자 현황

(2005년말 누계)

단위 : 건, 백만 달러

업종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Total	206	1,500	176	864
농 립 어 업	2	1	2	1
광 업	1	0.67	0	0
제 조 업	147	1,306	132	730
건 설 업	9	4	8	1
도 소 매 업	12	130	9	107
운 수 창 고 업	3	6	2	0.4
숙 박 음 식 업	5	0.6	4	0.21
서 비 스 업	26	51	19	24
부 동 산	1	0.93	0	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 제조업 투자가 압도적

- 2005년말 총투자 누계로 제조업 투자가 132건, 7억 3,000만 달러에 달해 대인도 전체 투자에서 건수로는 75%, 금액으로는 84%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대인도 투자가 아직 초기 단계로 그 동안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협력업체들에 집중된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됨.
- 제조업을 제외하고선 도소매업이 9건 1억 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이밖에 서비스업 19건 2,400만 달러를 제외하면 여타 업종에서 대인도 투자는 거의 미미한 수준임.

〈표 II-3〉

한국의 기업규모별 대인도 투자 현황

(2005년말 누계)

단위 : 건, 백만 달러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Total	206	1,500	176	864
대 기 업	61	1,386	47	793
중 소 기 업	114	103	100	65
기 타	31	11	29	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 대기업 위주, 100% 단독 투자가 특징

- 대인도 투자는 대기업이 47건 7억 9,300만 달러로 건수의 26.7%, 금액에서는 91.8%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대기업 투자가 건수의 4.8%, 금액의 44.3%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대기업 비중이 높은 것을 말해줌.¹⁾
- 이에 따라 대인도 투자는 건당 규모가 491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건당 평균 214만 달러의 두 배 이상에 달함. 특히 대중국 투자 건당 평균 93만 달러에 비해서는 5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투자지분별로 보면 2004년말 투자업체 리스트에 나와 있는 172개 업체 가운데 48.3%에 달하는 83개 업체가 100% 단독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의 경우는 100% 투자업체 수가 66.2%).
- 이는 경영권 확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우리 업체들의 해외투자 패턴이 인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말해줌.

1)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중국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 2003 회계연도 기준」, 2005. 3 참고.

〈표 II-4〉

투자지분별 업체수 현황

(2004년말 기준)

지분 비율	업체수	비중(%)	업종 현황
100%	83	48.3	제조업 76, 도소매업 7
75% 이상 100% 미만	5	2.9	제조업 4, 숙박음식업 1
51% 이상 75% 미만	29	16.9	제조업 28, 도소매업 1
50%	22	12.8	제조업 19, 도소매업 1, 운수창고업 1, 수산업 1
26% 이상 50% 미만	25	14.5	제조업 19, 도소매업 3, 수산업 3
26% 미만	8	4.7	제조업 8
계	172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업체 리스트」.

2. 한국의 대인도 투자기업 실태조사 결과

□ 실태조사 개요

- 한국수출입은행과 KOTRA의 협조를 받아 인도 투자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160여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도했으나, 주소 변경 등으로 소재 파악 안되는 업체가 많음.
- 연락이 가능한 70여개 업체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준 20개 업체와 2개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인터뷰를 하고, 투자업체들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애로 요인, 정책건의 등을 분석함.

□ 대기업 및 동반 진출업체 위주의 성과

- 현재 인도에 투자하여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충분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현지 정착에 성공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과 이들의 납품업체들임.

- 현대자동차와 LG전자, 삼성전자 등은 모두 적시에 선점형 투자를 하여 적절한 브랜드 마케팅으로 성공하였으며, 현재 인도 시장에서 각 제품 부문 1-2위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음.

〈표 II-5〉 주요 대기업 인도법인 운영 성과

기업명	투자 연도	소재지	주생산품	성 과
삼성전자	1995	Noida에 공장 Bangalore에 연구소	컬러TV, 전자 렌지, 세탁기, 에어콘, 모니 터, 냉장고	◆ 2003년 컬러TV 시장점유율 22% (평 면TV 매출 275% 증가) ◆ 2003년 매출 280억 루피로 85% 증 가 예상
LG전자	1997	Noida에 공장 Bangalore에 연구소	컬러TV, 세탁 기, 에어컨, 냉 장고, 핸드폰	◆ 2004년 컬러TV 시장점유율 24% → 2005년 30% 예상 ◆ 매출액 650억 루피 (2004) → 2005년 900억 루피 예상 ◆ 컬러TV가 전체 매출의 40%
현대 자동차	1998	Chennai에 공장	상 트 로 (비 스 토) 액센트(베 르나) 소나타	◆ 초기 12만대 규모에서 2004년 25 만대·규모로 증설 (2004년 판매 21.6만대로 43% 증가) ◆ 생산제품 모두 동종 부문 판매 1위 (시장점유율 20%) ◆ 승용차부문 최다 수출 (2004년 수 출증가율 149%)

자료 : 각기업 공개 자료 및 언론자료.

- 이들 대기업들과 동반 진출한 협력업체들은 대기업들의 성공에 힘
입어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로 성과를 올리고 있음.

〈표 II-6〉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대기업 협력업체

기업명	투자연도	지분	주생산품	관련기업
제이비엠성우	1997	50%	자동차부품 (Body철구조물)	현대자동차
에 스 엘(주)	1997	75.2%	자동차부품 (조명장치)	현대자동차
(주) 인 팩	1998	100%	자동차부품 (케이블)	현대자동차
(주) 조 웰	2001	100%	자동차부품 (변압기)	현대자동차
(주) 엠 코	2003	100%	건설	현대자동차
우 리 산 업	2004	100%	자동차부품 (공조장치)	한라공조(현대자동차)
Inkotech	2001	100%	모니터케이스	삼성전자
Starion	2001	100%	냉장고, 세탁기 부품	LG전자

□ 중소기업의 투자 리스크가 큼

- 투자업체 실태조사에 응한 19개 기업 중 8개 업체가 인도 투자에 실패했다고 응답하여 중소기업들의 투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업체들은 정보력 부족으로 시장전망을 잘못 판단하고 투자했거나 투자 후 동업자와의 마찰 등으로 철수했음.

〈표 II-7〉

투자 실패라고 응답한 기업

기업명	투자연도	지분	주생산품	실패사유
	1989	100%	대리석등 석재	IMF후 본사 사정 악화 (철수)
	1991	56%	EPS 수지	시장규모 작고 경쟁 치열 (철수준비)
	1992	33%	안경테	동업자측에서 사업확장 거부 (철수)
	1994	42%	결핵약 원료	경쟁 치열 (철수)
	1994	6.9%	브라운관용 유리	시장수요 적음 (지분매각 협상중)
	1996	35%	자동차 램프	대우자동차 몰락으로 폐업(자본잠식)
	2003	100%	식당업	시장규모 작아 개업 못함 (상황주시)
	2004	100%	경영컨설팅	투자 직후 바로 매각

-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업체로서 독자 진출하여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개사임.

〈표 II-8〉 투자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기업명	투자연도	지분	주생산물	성공 요인
카스저울	1999	100%	가정용 저울	브랜드 경쟁력
휴노랩스	2003	100%	소프트웨어	인도의 저임 프로그래밍 인력 활용

□ 위험과 기회가 혼재

- 투자 결과가 실패라고 응답한 업체 8개사 중 6개사가 1996년 이전에 투자한 업체들로서 과거 인도의 투자환경이 좋지 못했던 상태에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됨.
- 반면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본격화된 1990년대말 이후부터 투자한 업체들임.
- 이는 인도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크기는 하나 최근 인도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에 따라 투자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인도 경제의 고성장으로 기회도 커지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 투자 업체들 중에는 인도의 투자환경이 아직 열악하기는 하나 향후 전망을 밝게 보는 업체들도 많음. 제조업이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인도뿐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있음.

- ◆ 현재 영업 상황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장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어 기대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중국의 예를 볼 때 인도도 1인당 GNP가 750-800 달러 정도 수준이 된다면 내수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 Inkotech 김명보 사장

□ 복잡한 세제, 높은 세율의 문제

- 투자 업체 대부분이 복잡한 조세 체계와 높은 세율을 최대 애로요인으로 지적함 (제3장 투자업체 실태조사 참조)
- 인도의 세제 자체는 영국세제를 본뜬 선진적인 것으로 세율도 소득세의 경우는 여타 국가에 비해 사실 높은 편은 아님.
 - 법인세 경우 인도의 세율은 최고 33% (연간 소득 100만 루피 이상)로 한국 25% (지방세 포함시 27.5%)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중국 30% (지방세 포함시 33%), 미국 35% (42.5%), 일본 30% (42%) 등 여타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님.²⁾
 - 개인소득세도 5개 과표구간에 세율 0-33%로 여타국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님 (한국 8-35%, 중국 5-45%).
- 그러나 물품세, 판매세 등 상품의 입출고시 부과되는 세금이 높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데다 각주마다 세율이 달라 외국기업으로선 적응의 문제를 느낌.
 - 2005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하여 물품세와 판매세를 대체하고 전국적으로 세율을 단일화해 나갈 예정이나 아직 전품목에 완전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음.
- 관세의 경우도 금년부터 농산품을 제외한 전품목에 대해 기본세율을 종전의 20%에서 15%로 인하했으나 아직 여타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품목별로 부가세(additional duty)가 있음.
- 한국업체들이 인도에서 느끼는 납세 관련 문제는 특히 제도 자체 보다는 후진국적인 세정의 문제와도 관련이 큰 것으로 생각됨.

2) 조세일보 2005. 4. 12일자 “우리나라 법인세율 높은 수준 아니다”.

- 행정처리가 늦고 공무원의 부패가 심하며 자의적인 세무조사가 빈번함.

□ 후진국형 애로 요인 상존

- 역시 투자 업체 대부분이 전력, 용수, 도로, 통신망 등 열악한 인프라 사정을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전력 및 용수 부족으로 자체 발전시설 및 담수시설 등이 필수
- 대정부 업무, 금융거래, 물류 등 영업활동의 전분야에 부패가 만연하여 뇌물이 필수적인 점도 주요 애로요인임.
- 이러한 요인들은 개발도상국에 투자시 거의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요소로서 인도에만 특유하다고 할 수는 없음.

□ 동업자와의 갈등도 주요 고려 사항

- 대부분의 후진국 투자시는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요인으로 합작투자가 권장되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 상법규제에 의해 동업자 권한이 막강해 갈등 발생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 지적됨.
- 투자업체 1개사는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철수했으며, 1개사는 사업확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또한 철수 준비 중인 2개사는 지분 매각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는 다른 어느 시장에서 보다 인도의 경우 특히 합작투자의 리스크가 큰 상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됨.

□ 주제별로 심도 있는 연구 필요

- 이미 1만여건 이상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진 중국과 달리 인도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전체 170여건에 불과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고 있어 아직 초기 단계 수준임.
- 이에 따라 투자 관련 정보와 경험의 축적이 미약하고 단편적임. 또한 인도의 투자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정보들이 시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향후로는 조세, 특별경제구역, 금융제도, 노동 사정 등 각 주제별로 심도 있는 연구의 축적이 필요함.

3. 대인도 투자진출 전략

□ 철저한 시장 조사에 기초한 투자 결정

- 인도에 투자하여 실패한 기업들은 대부분 시장수요가 예상 보다 적고 경쟁이 치열했던 점을 실패요인으로 꼽았음.
- 인도는 아직 1인당 소득 600달러 수준의 세계 최빈개도국 중 하나이며 낙후된 경제, 사회구조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적극적인 개방, 개혁정책으로 고도성장을 하면서 향후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경제대국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함.
- 현재 상황에서 인도는 위험과 기회요인이 혼재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대신 고리스크, 고소득의 투기적 성격이 강한 시장이라 할 수 있음.

- 인도에 투자한 우리 대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실패한 중소기업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인도 시장의 이러한 성격을 보여준다고 생각됨.
- 그러므로 철저한 사전조사에 기초하여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문으로 진출해야 할 것임.

□ 적절한 투자 입지 선정

- 인도는 남북 3,300km, 동서 2,700km에 이르는 광대한 국토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별로 인종과 언어가 다양하고 도로, 통신망 등 인프라 사정도 좋지 않아 적절한 진출 거점을 선정하고 들어가야 함.
- 인도는 크게 ① 뉴델리 ② 뭄바이 (구 뽉베이) ③ 콜카타 (구 캘커타) ④ 첸나이 (구 마드라스)의 4대 도시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
- 각주별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을 집중 육성해오고 있는 바 주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살펴보면 <표 II-10>과 같음.
-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주로는 구자라트, 서벵골,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안드라프라데쉬, 카르나티카, 우타르프라데쉬 등의 7개주로 평가되고 있음.

〈표 II-9〉

주요 지역별 시장특성

지역명	시장특성
New Delhi 와 그 인근	◆ 수도 New Delhi를 중심으로 인근의 Haryana주와 Uttar Pradesh주 등이 일종의 수도권 형성 ◆ Uttar Pradesh주의 NOIDA 공단에 삼성전자, LG전자와 협력업체들 입주 ◆ 내륙에 위치해 내수산업 위주로 발전 ◆ 대부분 트럭운송에 수송 의존
Mumbai - Maharashtra 지역	◆ 뭄바이는 인도 최대 항구도시 ◆ 금융산업과 상업 발달, 인도 각주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임
Calcuta - West Bengal 지역	◆ 낙후지역으로 사회주의 정당들의 세력 강함 ◆ 자원개발 중심지이며, 남쪽 Orissa주에 POSCO 가 투자 예정
Chennai - Tamilnadu 지역	◆ 인도 주류 인종인 아리안족과 다른 타밀(드라비다족) 거주 지역 ◆ 첸나이는 항구도시로 현대자동차와 다수의 한국업체 입주

〈표 II-10〉

주별 주요 도시와 산업

주 명	주요 도시	주요 산업
마 하 라 슈 트 라	뭄 바 이	금융, 증권, 의약품, 자동차
타 밀 나 두	첸 나 이	자동차, ITES, 석유화학
카 르 나 티 카	방 갈 로 르	IT, 우주항공
안 드 라 프 라 데 쉬	하 이 더 라 바 드	IT, BT, 보석가공
구 자 라 트	아 마 다 바 드	의약품, 석유화학, 각종 제조업
서 벵 골	콜 카 타	IT, 피혁, 섬유, 전기전자
편 잡	루 디 아 나	섬유, ITES, 기계공구
하 르 야 나	구 르 가 온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전자, IT
우 타 르 프 라 데 쉬	노 이 다	전기전자, 자동차, IT
자 르 칸 드	보 카 로	철강, 광산업
델 리	뉴 델 리	중소제조업, 도소매업
차 티 스 가 르	라 이 프 르	다이아몬드, 알미늄, 철강, 시멘트
아 썸	구 와 하 트	합판, 석유화학, 섬유, 비료, 시멘트
마 니 푸 르	임 팔	수직업, 수공업산업
미 조 람	아 이 자 울	수직업, 수공업산업

자료 : 인도 상공부(<http://dipp.nic.in/>) 및 주한 인도대사관(2004).

□ 합작 보다 단독투자가 유리

- 현지의 한국대사관과 진출 업체들은 합작 보다는 단독 투자 진출, 아니면 경영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지분 참여를 통해 인도에 진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현재 지분 제한을 하고 있는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는 100%까지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음. 따라서 경영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지분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인도 정부가 까다로운 상법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으며, 인도인 합작 파트너와의 갈등 발생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큰 데 기인함.
- 인도 회사법(Company Act)은 양해각서 변경, 회사 목적 변경, 신규 사업 진출 등 26개 항목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주주 75%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74% 이하의 지분으로 는 사실상 중요 사항에 대해 외국인이 단독으로 결정을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 업체 중 2개사는 인도인 합작선과의 갈등을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적했음.
 - 안경테 제조업체인 민경은 사업확장에 대한 동업자측의 동의를 못 얻어 철수했음.
 -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제이비엠 성우도 사업 확장 및 생산장비 구매 등에 동업자측의 동의를 못얻어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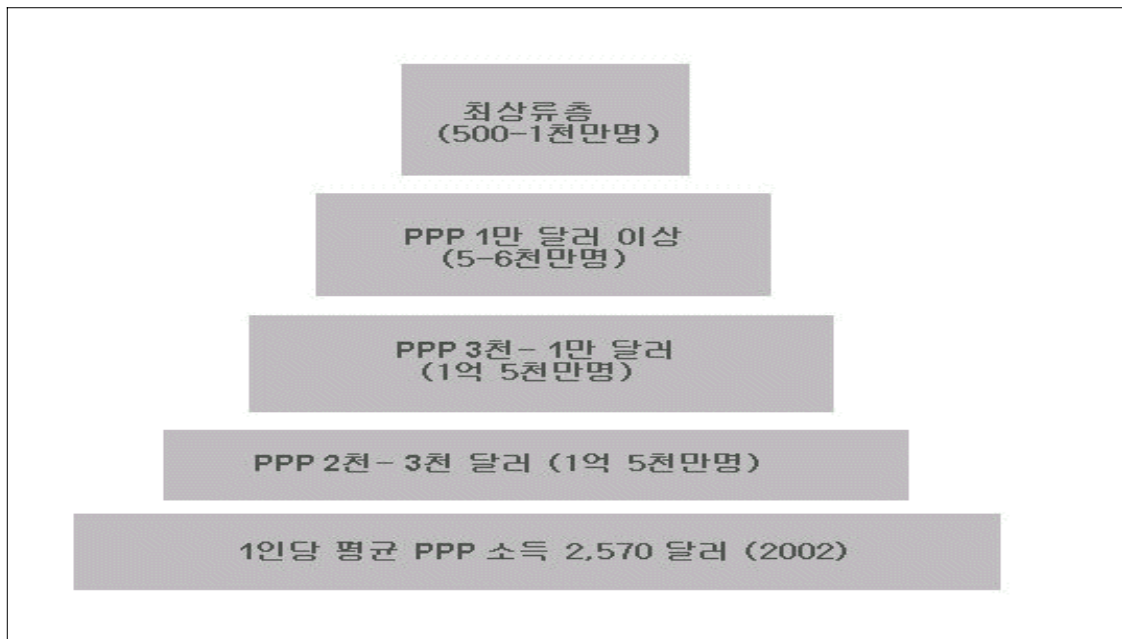
- 특수 업종의 경우는 이른 바 ‘국익보호 장치’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독자적인 경영권을 제한함. 2005년 2월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을 71%로 확대했으나, 이는 경영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종래의 49% 지분과 큰 차이가 없음.
- 특히 동조치에는 인도 정부내의 좌파 세력이 제기한 “국가 이익에 대한 보호 장치”가 수반되고 있음. 즉 CEO를 포함한 이사회 의 과반수 이상이 인도인이어야 하며 특히 기술 담당 및 재무 담당 이사는 반드시 인도인이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삽입되어 있음.
- 이러한 규제뿐만 아니라 인도인 동업자와의 사업 감각 차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갈등이 발생할 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음.
- 따라서 인도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의 지분 확보와 경영권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현지 경험자들의 권장사항임.

□ 내수시장 지향과 타겟 마케팅 필요

- 인도 내수 시장을 겨냥한 투자 진출이 한국 또는 제3국으로의 우회 수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 보다 영업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인프라 및 물류 열악 등으로 수출에 따른 부대비용이 크고, 인센티브가 거의 없기 때문임.
- 인도는 다른 어느 나라 보다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저가품 시장임. 그러나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은 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동시에 겨냥한 차별적 제품을 판촉하여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인도는 국민소득이 600달러 수준에 불과한 저소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부의 편재로 선진국 수준의 고소득 인구가 500-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림 II-1〉

인도의 소득계층 분포



자료 :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2003).

- 이런 점을 고려하여 주시장으로 삼는 소득계층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 타겟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임.

□ 저임 노린 노동집약 산업은 위험

- 인도의 경우 저임 노동력을 노린 노동집약형 산업은 투자 성과가 의문시된다는 평가가 많음. 인도 노동자들의 근로 개념 희박과 체력 부족으로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가 힘들.
- 따라서 대인도 투자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음. 직원 채용 및 관리는 경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다만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한국에서 단순 프로그래밍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인건비가 비싼데 반해, 인도에서는 저가의 인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평가했음.

□ 현지 원료 조달 가능 분야가 유리

- 인도의 높은 관세율과 항만 시설 및 수송 체계 부족, 통관 시스템의 비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원료를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수입하여 가공한다는 개념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가급적 인도 현지에서 원료나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임.

□ 인프라 부족 감안한 대응책 준비

- 인도의 경우 전력 및 용수가 심각하게 부족하고 도로 및 수송체계도 열악함으로 현지의 이러한 인프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구상한 후 투자해야 할 것임.
- 전력 및 용수 부족으로 자체 발전시설 및 담수화 시설이 필수적이므로 비용이 추가됨.
- 일부 업체는 투자 초기 공장건설 과정에서 시공업체를 잘못 선택해 공기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 등 상당한 애로를 겪은 사례도 있음. 기진출 업체들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구한 후 업체 선정 필요

4. 투자 유망업종

□ 투자 유망업종 선정 기준

- 국내외에서 발간된 시장 조사 자료, 자체적인 무역 통계 분석 자료 등에 기초해 ① 현재 인도의 내수 규모가 크고 ② 시장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③ 수입의존도가 높고 ④ 인도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등을 투자 유망업종으로 간주함.

□ 통신장비

- 최근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로 통신장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전체 시장 규모의 60% 내외를 수입상품에 의존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통신산업의 투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금년 2월 동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49%에서 74%로 확대했음.
- 유선전화장비는 2003년 현재 2만 6,300대의 교환기에 4,800만 회선, 3,600만대의 전화기가 연결되어 있으나 2007년까지는 8,180만 회선과 6,400만대의 전화기가 추가로 연결될 전망이다.
- 현재 전화밀도(tele-density)는 100명당 4명이고 농촌에서는 0.5명이나 인도 정부는 2010년까지 이 숫자를 각각 15명, 4명으로 늘릴 계획임. 이에 따른 투자비용은 2010년까지 680억 달러 예상
- 휴대폰 장비 이용은 2003년에 1,300만대로 전년대비 무려 80% 증가했으며, 2010년까지는 3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표 II-11〉

통신장비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시 장 규 모	6,016	7,289	8,154
국 내 생 산	2,745	3,125	3,541
총 수 출	35	52	83
총 수 입	3,306	4,216	4,696

자료 : US&FCS Market Research Reports.

〈표 II-12〉

통신장비 분야별 시장규모

	2003년 추정수요
전 화 장 비	6억대
휴 대 폰	1,000만대
광 학 케 이 블	2만 4,000 루트 Km
라디오 Trunk Line Hand Sets	100만개
V-SAT 터 미 널	5만 8,000개
인 터 넷 장 비	360만개

자료 : US&FCS Market Research Reports.

- 현재 인도 국내의 전자교환장비(telecom switches) 생산은 19개 업체가 중소형 장비를 생산하고 7개 합작기업이 대형 장비를 생산하고 있음. 국영통신회사인 BSNL(Bharat Sanchar Nigam Limited)과 MTNL(Mahanagar Telephone Nigam Limited)이 최종 수요자.

- 인터넷, 위성통신 장비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컴퓨터와 주변기기

- 정부기관 및 기업, 가정의 전산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빠른 발전 등에 힘입어 컴퓨터와 주변기기 시장도 꾸준히 확장되고 있음.

- 2003년 동부분의 전체 시장 규모는 56억 달러로 추산되며, 수입 규모는 13억 8,000만 달러였음. 주요 제품별 시장규모는 데스크탑 11억 9,800만 달러, 노트북 8,600만 달러, 서버 2억 1,500만 달러, 기타 주변기기 4억 4,000만 달러 등임.
- 현재 150여개의 국내외 업체들이 동부분의 생산을 하고 있으며, HP, IBM, Siemens, Dell, ACER 등 주요 다국적기업들이 모두 현지생산을 하고 있음. 국산 조립제품이 48%, 다국적기업 제품이 30%, 기타 인도 브랜드 제품이 22%의 시장 쉐어 차지.

〈표 II-1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시장규모	4,600	4,900	5,610
국내생산	3,980	4,200	4,830
총 수 출	300	500	600
총 수 입	920	1,200	1,380

자료 : US&FCS Market Research Reports.

□ 가전 부품

- 역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에 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가전의 수요가 연간 20%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1995/96년 이후 5년만에 생산규모가 2배로 늘어났음.
- 동부분은 Philips, Sony, Panasonic 등 전세계의 주요 업체가 거의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시장쉐어 1,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04년 전자부품 생산도 전년비 20% 증가했으며, 상당수의 한국업체들이 삼성, LG와 동반 진출하여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 전체 시장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향후 전망도 밝으며 한국업체들이 시장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동부문에 연계하여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큼.

□ 자동차 및 부품

- 자동차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2004년 승용차 생산규모가 전년비 36.7% 증가. 상용차도 35.1% 증가
- 현재 BMW, GE, 현대 등 세계 15대 자동차업체가 인도에 진출해 있으며 금년중 독일의 폭스바겐도 신규 진출할 예정임.
- 1998년 첸나이에 진출한 현대 자동차는 현재 시장점유율 20% 내외로 인도 업체인 Maruti, Tata 등과 승용차 부문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음.
-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추세이긴 하나 자동차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한국업체에 대한 인식이 좋아 전망이 밝음.

□ 섬유기계

- 섬유산업은 인도의 전통적인 최대 산업이며 고용과 서민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인도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산업임.
- 금년부터 섬유 수출에 대한 쿼터가 폐지되면서 인도가 중국과 함께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인도의 섬유업체들이 설비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어 수출 및 현지 진출을 통한 생산 모두 유망함.

□ 의료 장비

- 소득 향상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료 장비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으나 2003년 전체 시장규모의 62%를 수입에 의존하였음.
- 2003년 주요 제품별 시장규모는 ① 일반 진료장비 6억 4,500만 달러 ② 이미지(Imaging) 장치 2억 3,600만 달러 ③ 심장병(Cardiology) 장비 3억 400만 달러 ④ 심장외과 장비 1억 8,000만 달러 ⑤ 안과장비 9,200만 달러 등임.

〈표 II-14〉

의료 장비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시장규모	1,560	1,745	2,035
국내생산	675	760	865
총 수 출	45	80	90
총 수 입	930	1,065	1,260

자료 : US&FCS Market Research Reports.